

평화교육 진행자를 위한 호국보훈의 달 대체교안

배움의 공간에서 전쟁을 어떻게 다르게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피스모모 ×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

PEACE
MOMO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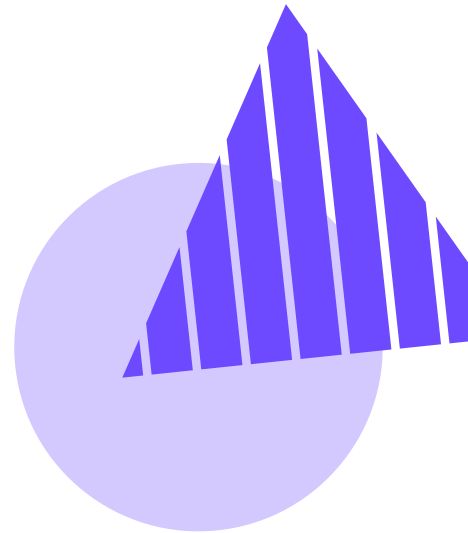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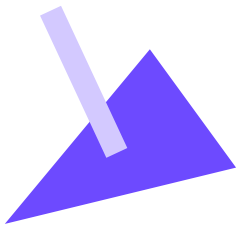
I. 시작하는 말 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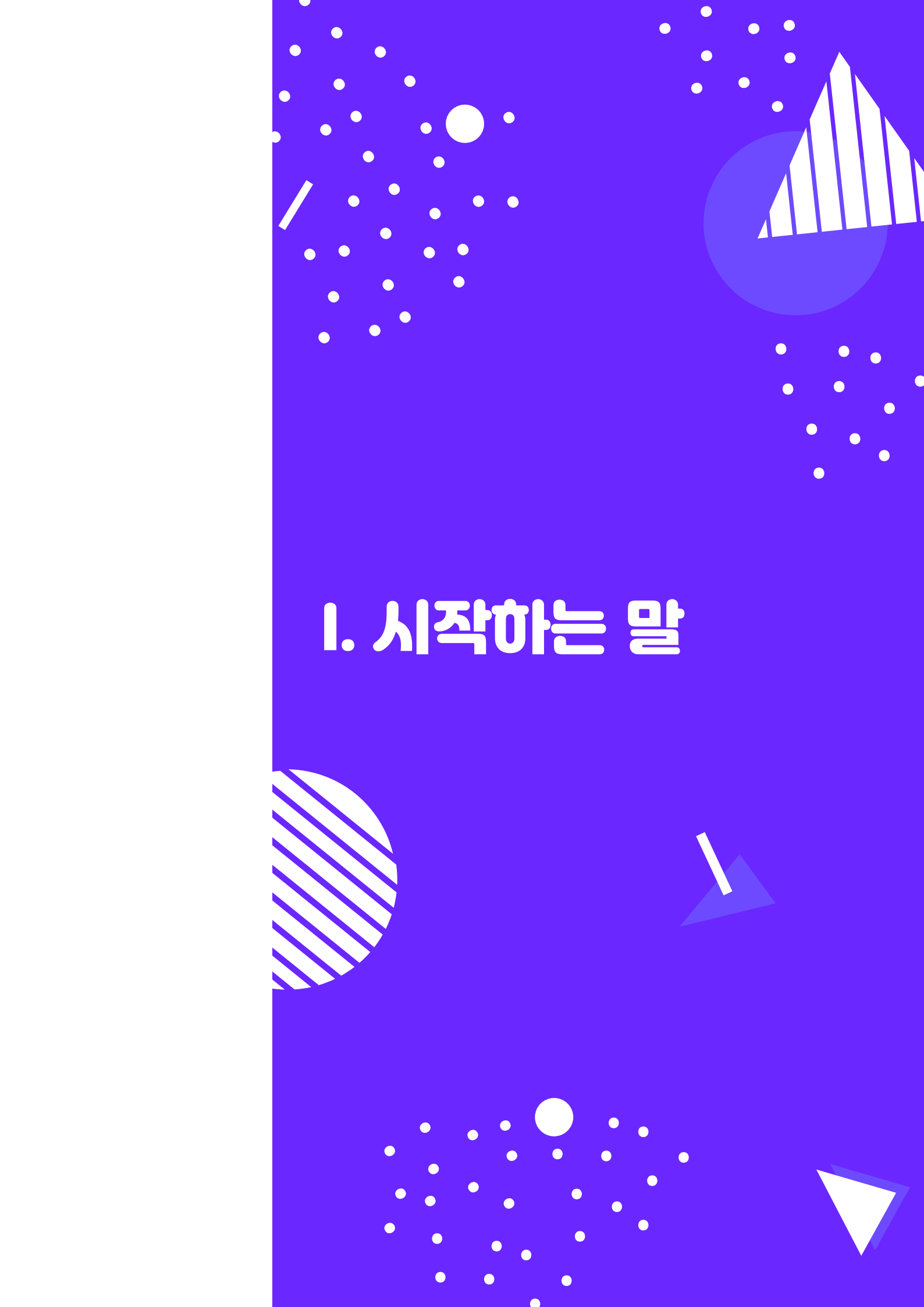
II. 여는 활동 7p

III. 활동 목록

1. 역할극: 간단한 역할극을 통해 전쟁을 간접 경험해보기 9p
2. 필드트립: 전쟁을 기념하는 공간에서 낯선 질문 나눠보기 11p
3. 책/기사: 전쟁을 겪은 존재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기 12p
4. 질문과 토론: 평화와 전쟁을 둘러싼 질문에 대해 토론하기 15p
5. 한걸음 더: 평화를 세우는 다양한 실천의 가능성 모색하기 20p

IV. 닫는 활동 24p





I. 시작하는 말

I. 시작하는 말

6월입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6월은 전쟁을 기억하게 되는 날들이 유독 많은 달입니다. 현충일(6월 6일), 한국전쟁 발발일(6월 25일), 제 2연평해전(6월 20일). 그래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호국보훈은 나라를 보호하고 공훈을 보답한다는 의미가 담긴 말인데요. 6월을 맞으며 나라를 지키느라 목숨을 잃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 생각합니다. 전쟁은 대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전쟁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전쟁의 포화와 그로 인한 기근 속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은 사람이 아닌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존재들의 고통으로 채워진 비극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기억하는 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정한 적 없는 전쟁에 참여해야 했던 수많은 군인들, 전쟁 속에서 죽어가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초래한 “전쟁”을 기억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에게는 그 희생들을 기억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국가는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해 왔을까요?

지금까지 국가가 전쟁을 기억해 온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폐쇄적이었습니다. 높은 계급을 가진 군인들이거나 승전을 이끌었다고 이야기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전쟁을 기록하고, 전쟁의 정당성이 도전받을 수 있는 사실들은 삭제하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기억을 구성해왔습니다. 누구를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할지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국가였고, 국가가 인정한 공로와 희생이 더 고귀하고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존재들의 이름은 지워졌지요.

국가가 기억하는 전쟁 속에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하나의 정답만 있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정답주의는 애국주의라는 이름의 국가주의와 강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지킨다는 군사안보주의를 강화해왔습니다.

배움의 공간에서 전쟁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번 활동안은 열려 있는 초대장입니다. 전쟁없는세상과 피스모모는 이 교안을 통해 이런 기억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왔는지 낯설게 보고, 전쟁에 대해 질문하는 시공간을 함께 경험하기를 희망하며 우리 사회가 전쟁을 기억해온 방식들에 대한 질문을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에 대한 다양한 기억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남성/비장애인/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억이 아닌, 국가가 승인한 기억이 아닌, 그저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소수의 영웅만을 기억하는 방식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존재들을 헤아리고 기억하려는 방식으로, 고귀한 희생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고통과 상처, 아픔을 돌아보는 방식으로, 전쟁에 대한 이 사회의 기억을 다채롭게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함께 기억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곧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고 애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활동안이 전쟁을 낯설게 바라보고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기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의 공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고자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2019년 6월 6일
전쟁없는세상과 함께 피스모모 드림

활동에 앞서

- 제안된 활동들은 참고자료일뿐 정답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하실 때에는 상황과 참가자에 맞게 얼마든지 응용하고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자는 지식이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참가자의 이야기를 촉진하고 연결하고 요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가자의 비판적 사고와 성찰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질문들과 주제와 연결된 개념, 키워드, 참고자료들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주세요.
- 다양한 의견과 생각, 질문이 개진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열린 대화의 시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공동체 약속 또는 제안을 함께 나누며 시작해도 좋습니다. (키워드 : 달라도 괜찮아, 뭐든지 OKAY, 서로배움)
- 무리해서 어떤 합의나 결론에 이르거나, 교훈적 메시지로 배움이 단순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II. 여는 활동

II. 여는 활동

전쟁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들

전쟁이라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과 사건을 기록해보는 활동입니다. 각자의 기록을 서로 나누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기억을 낯설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기억에 빠져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시간 20분

준비물 포스트잇, 펜

진행내용

- 1) 전쟁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인물 또는 사건을 각각 1~2개씩 포스트잇에 적는다.
- 2) 6-8명씩 모둠을 이뤄 각자가 쓴 것을 공유하며 이야기 나눈다.
- 3) 각자 적은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을 모둠별로 2-3가지씩 찾아본다.
(ex. 교과서에 나온 인물이다 / 나라를 지킨 영웅이다 / 남자다 / 한국이 승리한 전쟁이다 / 한국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 4) 전쟁에 대한 모둠 구성원들의 기억 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서로 질문하고 떠올려본다. 그 사람들은 왜 처음 떠올린 기억에 포함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5) 전쟁과 관련해 떠오른 사건들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 그 사건들은 왜 처음 떠올린 기억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야기 나눈다.
- 6) 교과서에 기록된 인물(사건)과 기록되지 않은 인물(사건)들을 누가 결정하는지 그리고 그 결정기준이 무엇일지에 대해 추론하며 토론한다.

III. 활동 목록

III. 활동 목록

1. 역할극: 간단한 역할극을 통해 전쟁을 간접 경험해보기

전쟁이 지금 여기 나에게 일어난다면

전쟁은 일상과 구분되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곧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 됩니다. 지금의 시리아, 팔레스타인, 예멘의 사람들은 일상으로서의 전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백년도 되지 않은 과거의 한반도 역시 전쟁중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쟁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니까요.

하지만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 또한 마냥 평화롭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일상의 폭력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에 사는 열세살 소년과 미국에 사는 스물두살 청년에게 이라크 전쟁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한국에 사는 스물 두살 여성과 예멘에 사는 서른 네 살 청년에게 평화의 의미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니까요.

이 활동은 전쟁의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들을 구체적인 사람과 상황속에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전쟁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연루된 수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으로 채워진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사건이니까요.

시간 35분

준비물 역할카드(참가자 인원수만큼), A4용지(인원수만큼), 그림도구

진행내용

1) 역할 카드를 준비한다. 카드에는 대략적인 설정만 적어둔다. (* 아래 목록은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수정해도 좋습니다)

- 20대 여성: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입니다.
- 20대 남성: 성소수자이고, 입영대상자입니다.
- 군인(사병): 이등병이고, 군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 정치인: 전쟁을 찬성하는 당의 유력 정치인
- 40대 여성: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입니다.
- 어린이: 부모와 더 어린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 군수산업체 사장: 전쟁무기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의 CEO

- 할머니: 나이에 비해 정정합니다
- 길냥이
- 사람과 함께 사는 강아지

- 2) 참가자들이 4~6명의 소그룹으로 짝을 지은 다음 역할카드를 하나씩 고르게 합니다.
- 3)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상황 묘사가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상황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상황 예시

-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어느 나라
- 한국 전쟁 당시 한반도
- 가상의 전쟁 상황도 좋습니다.

- 4) 참가자들이 자신이 고른 역할카드에 담긴 사람의 입장에서 전쟁을 만난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할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경험한 전쟁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눈다.
- 5) 새로운 소그룹을 구성한다. 같은 역할카드를 뽑은 사람들끼리 소그룹을 만들고 각각 자신의 역할에 따라 전쟁을 상상 속에서 경험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눈다.
- 6) 다시 전체로 모여 앉아 서로 상상 속에서 경험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7) 다시 소그룹을 구성하여 역할카드를 벗어난 '나'의 입장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상황들을 겪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짧은 기록을 남김으로써 마무리한다. 기록은 다음과 같은 문장의 빈칸을 채우는 형태여도 좋다. (ex. 나에게 전쟁이란_____다.)

안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보기

평화의 반대는 전쟁일까요? 전쟁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의 평화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없으면 평화롭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국가안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는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생산과 구입은 이웃나라의 무기생산과 구입을 촉발해 결과적으로 우리는 끊임없는 군비경쟁의 악순환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대

체 무엇일까요? 안보는요? 무기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무기는 우리에게 안보를 가져다 줄까요? 평화와 안보는 과연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안보는 무엇이고 평화는 무엇일까요? 이 활동은 평화와 안보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활동입니다.

시간 30분

진행내용

- 1) 참가자들을 4명~6명 소그룹으로 구성한다.
- 2) 아래 질문들을 하나씩 공유하며, 소그룹 별로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나누도록 안내한다. 질문의 목록은 진행자가 더 추가해도 좋다.

- 나에게 평화는 무엇입니까?
- 나는 언제/어떤 상황에서 평화(안보)가 깨집니까?
- 나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 4) 소그룹 토론을 마친 후에는 그룹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전체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2. 필드트립: 전쟁을 기념하는 공간에서 낯선 질문 나뉘보기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많은 시민들이 전쟁기념관을 방문합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도 관광명소 중 하나로 방문하고는 합니다.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는 전쟁기념관을 ‘호국의지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도장’으로 명시하고 전쟁을 단일 주제로 대한민국 대표 전쟁사 종합 박물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과연 ‘기념’될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전쟁’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대형 전쟁기념관은 있으면서 평화박물관은 없는 걸까요? 왜 전쟁만을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웅장하고 거대하게 전시된 무기와 상징물들이 가득한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전쟁을 기념하는 공간을 낯설게 바라보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 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전쟁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했으나 언급되지 못했거나 빠져있는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 왜 대형 전쟁기념관은 있는데 평화박물관은 없을까요?
- 전쟁기념관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만들었을까요?
- 6.25 전쟁실: 기록된 ‘제주 4.3 및 여순사건’ 등에 대한 설명 이외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놓치지 않아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남한 정부에 의해 수만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해외파병실: 전쟁기념관이 말하지 않는 ‘베트남 전쟁’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정보는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21쪽 ‘전쟁을 기억하는 다른 방법들 - 시민평화법정’ 내용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 무기전시장: 거대하고 성능좋은 무기는 다시 말해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무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웅장한 무기 전시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무기에 희생된 존재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TIP!

- 이 질문 목록은 열린 토론을 촉진할 수 있는 질문임을 기억해 주세요. 모든 질문을 한번에 던지기 보다는 하나의 질문을 심도있게 다룰 수도 있겠지요. 또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http://www.militarywatch.or.kr/>)에서 ‘전쟁기념관에서 평화를 말하다’는 주제로 전쟁기념관이 배제한 역사 또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한 단행본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단체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전쟁기념관의 대안으로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전쟁의 업적을 전시하고 기념하는 방식이 아닌, 일본군 ‘위안부’의 시각으로 전쟁의 피해와 고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3. 책/기사: 전쟁을 겪은 존재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기

우리가 기리는 호국영웅은 대부분 전쟁터에서 싸운 군인과 장군이지만, 기억이 거기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전쟁의 아주 일부분, 아주 제한적인 부분만을 기억하는 것이 될거예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군인이었던 여성, 군인이 아니었던 민간인 여성, 어린이와 노인들의

이야기, 동물과 식물이 경험한 전쟁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본 활동에서는 애국과 호국의 관점이 아닌 고통과 상실의 관점에서 한 명 한 명이 경험한 전쟁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봅니다.

시간 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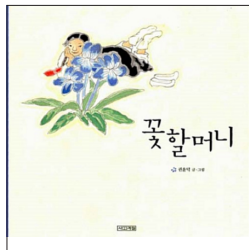
준비물 전쟁의 이야기가 담긴 증언기록 또는 그림책 4-5권



조개맨들

신혜은(지은이), 조은영(그림) | 시공주니어

조개껍질들이 가득한 조개맨들이 있는 곳, 강화도 교동면 대룡리, 바로 그곳이 영재의 고향입니다. 영재는 아빠랑 조개맨들에 참외를 심으러 가기도 하고, 붓꽃길을 걸으며 산책도 합니다. 학교입학을 앞두고 마냥 설레기만하는 영재의 즐겁고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는 커다란 사건,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친척들이 잡혀가고, 피난민이 끊임 없이 내려오고, 급기야 다정했던 아빠도 끌려가고 말지요. 소식 없는 아빠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영재와 영재의 가족. 영재는 지금도 조개맨들에 서면 아빠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꽃할머니

권윤덕 | 사계절

이 그림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심달연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꽃할머니는 열세 살 무렵 언니와 함께 나물을 캐러 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에게 끌려가 지속적인 성폭력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몸과 마음의 후유증을 안고,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꼭꼭 숨긴채 살아야했지요. 50년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꽃할머니는 드디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습니다.



빼빼기

권정생(지은이), 김환영(그림) | 창비

순진이네가 키우는 아기 병아리 한 마리가 어느 날 아궁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불에 덴 아기 병아리는 부리가 문드러지고 발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 엉거주춤 서서 빼딱빼딱 걸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름이 ‘빼빼기’가 되었습니다. 순진이네 식구들은 모두 불에 덴 병아리를 살뜰히 보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빼빼기와 순진이네 식구들의 삶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강냉이

권정생(지은이), 김환영(그림) | 사계절

형이랑 나랑 엄마랑 집 모퉁이에 웅기종이 모여앉아 옥수수를 심었어요. 거름주어가며 살뜰히 보살피니 쑥쑥 자라 키 만큼 컸지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보따리 싸 들고 피난을 가야 해요. 당연히 옥수수는 두고 갈 수밖에 없지요.

모퉁이에 두고 온 옥수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고 소중한 것들을 모두 파괴하는 전쟁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책입니다.



곰이와 오편돌이 아저씨

권정생(지은이), 이담(그림) | 보리

바람기 없이 고요한 달밤, 치악산 골짜기 어디쯤에서 곰이와 오편돌이 아저씨가 부스스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하얀 둥근달을 쳐다보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30년쯤 전에 떠나온 고향 이야기도 하고, 치악산 골짜기에서 죽어간 이야기도 합니다. 아홉 살 곰이는 그 전쟁이 왜 일어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엄마도 보고 싶고 고향에도 돌아가고 싶지만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춘희는 아기란다

변기자 (글), 정승각(그림) | 사계절

마흔세 살, 그런데 아직 기저귀를 해야 하는 ‘자라지 않는 아기, 춘희’ 이야기입니다. 봄에 태어나 ‘춘희’라 이름 짓고 어서어서 크라고 열심히 일하며 키웠지만 자라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만 있는, 아직도 기저귀를 해야만 하는, 그래도 어여쁜 ‘우리 아기’ 이야기. 식민과 피폭,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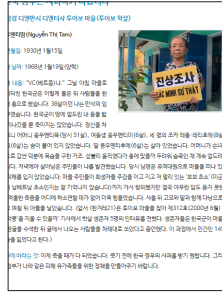


그 꿈들

박기범 (지은이), 김종숙(그림) | 낮은산

이 책은 박기범 작가가 이라크 전쟁 당시 포화 한복판에서 인연을 맺은 이들 하나하나의 얼굴과 사연을 되살려 구성한 이야기에 김종숙 화가가 그린 서른일곱 점의 유화 그림을 보태 완성된 작품입니다. 인간으로서 더할 수 없이 참혹

한 시간을 살았고 여전히 살고 있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함으로써, 텔레비전 화면이나 인터넷 기사 너머에 존재하는 전쟁의 실상을 정제된 언어로 호소력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사] 마을에서 생존자가 단 한 명,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103인 청와대 청원

1966~72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파병된 청룡부대는. 청룡부대는 남베트남인민해방전선 인민해방군(베트콩) 양수색을 쉽게 하기 위한 ‘주민 소개’ 작전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무참히 죽이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한국군 파병기간(1964~73년)에 민간인 학살 피해자는 약 9천명으로 추정됩니다. <한겨레21>에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 17명이 청와대에 보낸 청원서를 기사로 담았습니다.

[기사링크](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840.html) :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6840.html

진행내용

- 1) 6-7명씩 모둠을 이뤄 동그랗게 모여앉는다. 전쟁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 또는 증언기록을 모둠별로 한 편씩 선택하여 읽도록 한다.
- 2) 모둠원들끼리 한페이지 또는 한 문단씩 돌아가며 자료를 함께 낭독한다. 이야기 속 존재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곁에 서는 마음으로 읽는다. 한 명이 낭독할 때 다른 모둠원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집중하며 듣는다.
- 3) 자료를 모두 낭독을 하며 생겨난 여러 감정과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질문을 나눈다. 한 명 한 명의 삶과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 나눈다.

질문예시

-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이야기 속 인물에게 전쟁/국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 전쟁은 이야기 속 인물/존재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4. 질문과 토론: 평화와 전쟁을 둘러싼 질문에 대해 토론하기

함께 나누면 좋은 질문과 진행자를 위한 팁 & 참고 자료

■ 누가/무엇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나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지진, 태풍 등의 자연 재해와 기후 변화를 비롯한 사회경제적인 심각한 위기 등 우리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참가자들이 스스로 찾아보도록 촉진해주세요.

■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군대 없는 나라 전쟁 없는 세상> (김재명, 나무야, 2016)

<전쟁론>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갈무리, 2006)

<왜 세계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가?> (다케나카 치하루, 2009)

<전쟁국가의 탄생> (레이첼 매도, 갈라파고스, 2019)

■ **군대가 없으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까?> (하승우, 뜨인돌, 2008)

<군대를 버린 나라> (아다치 리키야, 설배환 옮김, 검동소, 2011)

‘군대가 없어도 나라는 안 망한다’(김용한, 한겨레신문 기사, 2004. 1. 11)

■ **정부(군대)는 늘 국민의 평화를 지켜왔나요?**

-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들: <씩스틴>(권윤덕, 평화로움은책, 2019), <소년이 온다> (한강, 창비, 2014) , 영화 ‘택시운전사’

- 제주4.3을 다룬 작품들: <나무도장> (권윤덕, 평화로움은책, 2016), <순이삼촌> (현기영, 창비, 2015), <제주43을 묻는 너에게> (허영선, 서해문집, 2014), 영화 ‘지슬’

- 그 외: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비엣 타인 응우옌, 부희령 옮김, 더봄, 2019), <오버 데어> (문승숙, 마리아 혼, 이현숙 옮김, 그린비, 2017)

■ **안보/평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안보/평화를 위해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성, 총앞에 서다> (신시아 코번, 삼인, 2009)

벨기에, 터키, 미국, 콜롬비아, 스페인,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태평양 지역, 인도, 시에라리온, 이탈리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영국의 여성반전평화 활동가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허심탄회한 고민뿐만 아니라, 전쟁과 가부장제 그리고 사회 모순에 대한 세련되고 신중한 여성주의적 성찰과 젠더 분석이 담겨있다.

<전쟁에 반대한다> (하워드 진, 이후, 2003)

전쟁을 기획하는 이들,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들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지상에서 방공호를 찾아 허둥거리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전쟁을 바라보자는 제안이 담겨있다.

<평화만들기 101> (메리와인 애슈포드, 동녘, 2011)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은 이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계 평화를 함께 실천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101가지가 담겨있다.

+ 이 교안 본활동 중 ‘실천모색하기’를 참고해주세요.

■ 전쟁의 기억에서 배제된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박은정 옮김, 문학동네, 2015)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에 참전했던 200여 명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 여성들의 전쟁 회고담은 그동안의 베테랑 군인이나 남성이 털어놓은 전쟁 회고담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온 이야기다.

<그녀에게 전쟁> (김현아, 도서출판 솔로비, 2018)

전쟁이 아닌 시기의 구조적 폭력이 어떤 식으로 전시 상황과 일상을 연결하며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폭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조영주 외, 아르케, 2013)

전쟁과 분단을 여성의 근대경험에서 재해석하고자 함. 전쟁 경험이 기억되고 말해지는 방식에 대한 젠더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개인의 삶에서 분단과 전쟁이 의미화되는 과정을 담았다.

<핵폭발 뒤 최후의 아이들> (구드룬 파우제방, 보물창고, 2006)

핵폭발을 직접 목격한 아이의 시선에서 핵폭발의 경험과 그 뒤의 고통, 남겨진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도 강한 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란 별> (카르멘 애그라 디디, 헨리 쇠렌센, 이수영, 해와나무, 2017)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나치의 군대에 저항한 덴마크인들의 독립운동 이야기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진 샤프, 백지은 옮김, 현실문화, 2015)

다양한 비폭력 저항 방식 및 효과 소개

다양한 토론방식

- **1:1토론** 두 명씩 짝이 되어 1~2분 동안 서로의 생각 나눔. 주로 토론 초반에 배치.
- **번개토론/브레인스토밍** 5-6명이 서로 돌아가며 짧은 시간동안 각자의 생각을 키워드 중심으로 나누기. 모든 의견을 긍정하면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핵심. 주로 심화 토론으로 이어지기 전에 배치.
- **피라미드 토론** 2->4->8명으로 토론 모둠의 사이즈를 점점 늘려가면서 대화를 상승시키고, 토론의 내용을 심화.

- **스펙트럼 토론** 공간을 가로지르는 직선을 긋고, 양 끝을 찬성과 반대로 각각 설정. 토론 질문에 대한 찬반 의견 정도에 따라 직선 위에서 각자를 위치시키고 이유를 나눔. 그 과정에서 찬성-반대 사이의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이 드러남.
- **월드카페**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루어지는 친밀한 카페식 대화. 5~7명 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테이블별로 설정된 주제에 따라 대화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테이블로 이동. 테이블별로 배치된 카페지기는 대화의 촉진과 정리를 도움. 토론 종료 후 각 테이블별로 나온 이야기들을 전체와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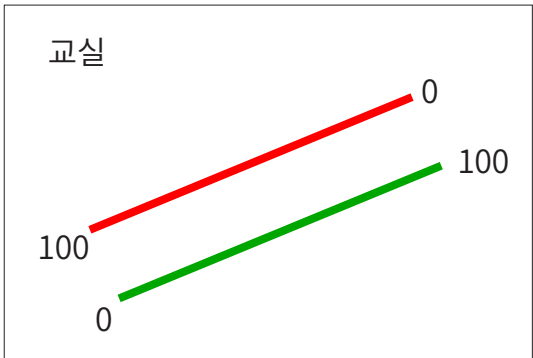
[참고] 토론 진행 예시: 스펙트럼 토론

시 간: 40분

준비물: 색깔 뚜렷하게 구분되는 2개의 셀로판 테이프, 점수표지, 포스트잇, 필기구

진행내용

- 1) 교육공간을 가로지르는 2개의 색이 다른 선을 셀로판 또는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해두고, 양 끝에 각각 100과 0을 표시한다.



- 2) 참가자를 빨강, 초록 두 그룹으로 나눈다. 빨강 그룹과 초록 그룹이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선을 따라 각각 일렬로 앉도록 안내한다.
- 3) 진행자가 활동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진행자가 보여주는 문장을 보고, 그에 대한 각자의 찬성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위치를 정하여 앉는다. 내 양 옆에 앉은 사람들과 점수를 비교해보면서 내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고 앉는다.

- 4) 문장을 하나 보여주고, 각자의 찬성 점수에 따라 위치를 정하여 앉도록 안내한다. 반드시 양 옆의 2인과 점수를 확인한 후 앉도록 한다.

문장 예시

- 전쟁과 폭력은 인간의 본성이다.
-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숭고한 일이다.

- 5) 먼저 점수 차이가 적은, 양 옆에 앉은 사람과 점수 차의 요인을 확인하며 각각 2~3분씩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예를 들어, 50점인 사람 옆에 52점이 앉아있다면 2점의 점수차는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한다.
- 6) 이번에는 점수 차이가 큰, 바로 앞에 마주 보고 앉은 사람과 점수 차의 요인을 확인하며 이야기해본다.
- 7) 이야기를 마친 후, 그 과정을 통해 위치가 변경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할 기회를 준다. 변경 이유도 들어본다.
- 8) 문장을 바꿔가며 2~3번 정도 반복할 수 있다.
- 9) 활동을 마치며, 각자의 최종 점수와 이유를 색지나 포스트잇에 키워드로 적어 벽에 점수의 순서대로 붙이고 함께 들여다본다.

[참고] 토론 진행 예시: 월드카페 토론

시 간: 1시간

준비물: 세부 주제 수만큼의 모둠 테이블, 테이블별 주제 안내 표지, 포스트잇, 전지, 필기구

진행내용

- 1) 세부 토론 주제를 4~6가지로 정하고, 주제의 수에 맞춰 모둠 테이블을 준비한다. 모둠테이블별로 각기 다른 주제를 배정한다.

주제 예시

- 전쟁은 왜 일어날까?
- 우리 사회는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 평화에 가까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전쟁의 무엇을 기억하고, 누구를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할까?
- 전쟁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 2) 각 테이블별 1명의 카페지기를 정한다. 다른 사람들은 참여자가 된다. 모듬의 사이즈에 따라 20~30분간 주제 관련 토론을 한다.

카페지기의 역할 (테이블별 1명씩 필요)

: 각 테이블에서 대화를 촉진, 연결,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대화가 종료되어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며 다음 토론자들을 맞이한다.

- 3)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카페지기를 제외한 참가자들을 테이블을 옮겨 다른 주제로 토론을 이어간다. 테이블 이동 시에는 방금 같이 앉았던 사람들과 3명 이상 겹치지 않도록 한다.
- 4) 2~4번 정도 테이블을 바꿔가며 반복한다.
- 5) 토론이 모두 끝나면 카페지기는 토론자와 자신이 정리한 내용이 적힌 전지를 보며 주요 내용을 요약적으로 공유한다.

5. 한걸음 더: 평화를 세우는 다양한 실천의 가능성 모색하기

평화를 세우는 여러 실천들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2011년부터 시작된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매년 4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은 군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한국 역시 여러 평화단체들이 매년 GDAMS 캠페인을 통해 ‘군비 축소’의 의미와 군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전시회 반대 캠페인(아덱스저항행동, STOPADEX)

아덱스저항행동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방위산업 전시회에 대응해, 안보 불안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무기산업과 군비경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알리는 실천을 합니다. 2019년 10월, 아덱스저항행동은 다시 한번 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덱스저항행동 홈페이지(stopadex.org)를 참고해 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이나 종교·정치·윤리·철학적 신념을 바탕으로 군복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기타 전쟁준비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러한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고 합니다. 한국의 병역거부자 대다수는 여호와증인 신도들이지만 기타 종교적 신념이나 평화주의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이 ‘군대 아니면 감옥’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해 평화단체들의 지속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캠페인의 성과 중 하나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전쟁없는세상 홈페이지(www.withoutwar.org)를 참고해 주세요.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은 전 세계 103개국 541개의 비정부기구의 연합체로서 국제캠페인을 통해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핵무기폐기운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국가들이 조약에 가입, 비준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함께 합니다.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더 자세한 정보는 ICAN 홈페이지(www.icanw.org/)를 참고해 주세요.

전쟁을 기억하는 다른 방법들

시민평화법정(2018년 4월 21일 - 22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1968년 베트남 광남성에서 있었던 풍니·풍넛 마을 학살 사건의 생존자 응우옌 티 탄과 하미 마을 학살 사건의 생존자 응우옌 티 탄을 원고로, 대한민국 정부를 피고로 하여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책임을 묻는 법정입니다. 주심을 맡은 김영란 전 대법관은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전쟁범죄의 성격을 띠는 사건”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선고함. 더 자세한 사항은 한베평화재단 홈페이지(www.kovietpeace.org)를 참고해 주세요.

여성국제전범법정(2000년 12월 8일 - 12일)

일본 도쿄에서 법률 전문가들과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는 일본의 전 국왕인 히로히토에

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2차 대전 직후 열린 도쿄전범재판의 결과를 뒤엎었습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의 과거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고발한 지 10년만에 이루어낸 이러한 성과는 비록 민간법정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가해자의 증언과 책임자를 적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는 피해국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10여년 동안 줄기차게 벌여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운동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아카이브 페이지(www.genderarchive.or.kr/items/show/11058)를 참고해 주세요.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며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행동하는 박물관. 더 자세한 사항은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 홈페이지(www.womenandwarmuseum.net)를 참고해 주세요.

IV. 달는 활동

IV. [달는활동] 오늘의 대화 돌아보기

시간 30분

준비물 색지 또는 포스트잇 넉넉히, 펜

진행내용

- 1) 서로 마주볼 수 있게 동그랗게 모여 앉는다.
- 2) 함께 나눈 대화의 경험에 대해 서로 소감을 나누고 듣는다. 서로 소감을 나누기 전에, 진행자가 참가자들이 활동을 상기할 수 있도록 진행된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짧게 짚어 주어도 좋다.
 - 기억에 남는 누군가의 말
 - 대화의 과정에서 새롭게 얻게된 생각
- 3)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적고, 함께 나눈다.

TIP!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적는 것은 개인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 드려요.

피스모모는

가르치지 않는 평화교육을 통해 수평적인 서로배움을 실천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는 의미와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왔던 소설 주인공 ‘모모’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숨 가쁘게 바쁘고 빠른 현대사회의 시간 속에서 멈추어 깊어지고, 울림이 있는 “돌아봄과 돌봄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피스모모의 모든 프로그램은 P.E.A.C.E. 페다고지를 기반으로 기획, 운영됩니다. P.E.A.C.E. 페다고지는 모모가 지향하고 실천하는 평화교육의 철학이자 원리임과 동시에 방법론이며 참여적, 대화식, 문화예술적, 비판-창조적, 낯설게 하기의 페다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peacemomo.org
- 이메일: peacemomo0904@gmail.com
- 연락처: 02-6351-0904
- 페이스북: www.facebook.com/peacemomo0904

전쟁없는세상은

모든 전쟁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는 신념에 기초해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활동하는 평화주의자 반군사주의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병역거부 캠페인을 비롯하여 무기감시 캠페인, 비폭력 프로그램을 단체의 주요 활동으로 삼고 다양한 반전평화운동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비폭력평화운동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생산, 보급(계간지 전쟁없는세상, 책, 팸플렛 발간, 번역 등)을 통해 비폭력에 대한 철학이 운동에 결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withoutwar.org
- 이메일: peace@withoutwar.org
- 연락처: 02-6401-0514
- 페이스북: www.facebook.com/withoutwar.org

호국보훈의 달,
교실 안에서 전쟁을
어떻게 다르게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 교사를 위한 평화배움
교안 시리즈 4

발행일 : 2019. 6. 6.
작성자 : 이용석, 전세현, 하니
편집/발행인 : 문아영
디자인 : 민디자인
발행처 : 피스모모, 전쟁없는세상